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말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해라

본 문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번 주 주일에는

- 다른 데 더 좋은 뜻이 있다.

-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 오늘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해라.

- 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

◆ 물건을 살 때, 비싸다고만 생각하면 못 삽니다.

<비싼 것>만 생각 말고, <좋은 것>도 보고 따져야 됩니다.

비싼 만큼 ‘좋은 것’ 이 없으면 비싸기만 한 것이고,
비싼 만큼 ‘좋은 것’ 이 있으면 합당합니다.

<말씀 시작>

- ◎ 지금부터 <실제로 월명동에 갖다 놓은 돌 작품>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 줄 테니,
<물건>도 비싸다고만 생각 말고 ‘좋은 것’ 을 보듯이
<신앙>도 그리해야 됨을 깨달으면서 듣기 바랍니다.

- ◆ <한 작품 돌>이 있는데, ‘다른 돌’ 에 비해 배나 비쌌습니다.
안 사려고 했는데 사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
<첫 번째>로 깨달아지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비싼 만큼 좋은 것도 있다.’ 했고,
<두 번째>로 깨달아지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비싼 만큼 세 배 더 귀하게 쓸 수 있다.’ 했습니다.

- ◆ 바로 이 돌입니다. (사진1 - 비싼 작품 돌 사진)

- ◆ <이 돌>은 <먼저 사 온 작품 돌>과 ‘색’ 이 같습니다.

<먼저 사 온 작품 돌>은 바로 이 돌입니다.

(사진2 - 먼저 사 온 작품 돌 사진)

- ◆ 그래서 비싸도 ‘먼저 사 온 돌’ 옆에 놓으면
서로 매치가 되어 **한 쌍**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을 매치하여 ‘한 쌍’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진3 - 두 개의 돌을 매치한 모습 사진)

<하나>만으로는 비싸지만

이렇게 ‘두 개의 돌’을 매치하여 ‘한 쌍’으로 만드니,

<비싸게 산 돌>도 배로 값이 나가서 더 귀하게 되었고

<먼저 사 온 돌>도 배로 값이 나가서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돌’이 하나 되니,

어디에 내놔도 ‘대(大)작품’입니다. (사진3 끝)

◆ (사진4 - 비싼 작품 돌 사진만 다시 보여 주기)

이 돌은 작는데 뭘 보고 비싸게 파는지 보니,

앞뒤 좌우 네 군데가 작품이었습니다.

돌의 맨 위쪽은 ‘날개가 나서 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값을 비싸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진4 끝)

◆ 사람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앞뒤 좌우, 동서남북 모두 다 닮으면

날개가 나서 나는 인생이 됩니다.

고로 ‘작아도 가치 있고 빛나는 영육 대결작 인생’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원래는 이 ‘작고 비싼 돌’ 말고 ‘다른 돌’을 사 오려고 했습니다.

그 돌은 무게가 이 돌보다 배나 더 나가고,
높이도 1m나 더 크고, 형상이 봉울봉울한 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오랫동안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작은데 비싼 이 돌의 반값’도 안 받겠다고 해서,
최고로 헐하게 살 수 있으니 ‘그 돌’을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차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 ◆ 아쉬워하면서,
할 수 없이 ‘작은데 비싼 이 돌’을 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 돌>은 멋있는데, 그 돌보다 배로 비쌉니다.” 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 ◆ 하나님께 물으니 ‘큰데 싼 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돌>은 깨져서 붙인 것이고,
형상을 보면 ‘우상 냄새가 나는 형상’이다.

그리고 색이 ‘흙색’으로 안 좋다.

<보물 작품>은 ‘그 존재에 해당되는 색’이 그리 중하다.

<사람>도 아무리 멋있고 예쁜 형상을 가졌어도
‘흑암 빛’을 가지면 가치가 없다.

그 돌은 크고 무게도 나가지만 ‘우상 형상’을 하고 있으니,
나 여호와가 원치 않는다.

또 ‘색’도 어두워서

<먼저 사 온 흰색 작품 돌>과 매치가 안 된다.

<짜>이 안 된다는 말이다.”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 월명동은 하나님의 전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면
늘 하나님께 100% 물어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싫어하시니,
항상 ‘삼위일체와 사연 있는 작품 돌’ 을 사다가
자연성전에 쌓거나 놓습니다.

- ◆ 결국 <작지만 색이 희고 날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비싼 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비하신 돌>이라는 것을 깨닫고 샀습니다.
- ◆ 그리고 <이 돌>을 <먼저 사 온 흰색 작품 돌> 옆에 놓으니,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이 매치가 되었습니다.

(* 다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할 테니, 잘 보고 듣기 바랍니다.) <영상> 매우 중요

- ◆ <먼저 사 온 돌>은
‘삼위일체’ 를 상징하는 돌로서 ‘신랑’ 을 상징합니다.

모양이 ‘임금이 옷을 입은 형상’ 같습니다.
- ◆ <나중에 사 온 돌>은
‘땅의 예비되고 휴거된 신부들’ 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모양이 ‘여성같이 아기자기’ 하고,
마치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형상’ 같습니다.

또 돌의 맨 위쪽을 보면 ‘날개가 난 형상’ 이 있는데,
마치 ‘휴거되어 날개를 단 신부들의 모습’ 과 같습니다.

- ◆ <형상>은 ‘이미지’ 만 나타내도 ‘그 존재를 상징’ 합니다.
- ◆ 이 두 개의 돌은 ‘색’ 도 같고 ‘모양의 느낌’ 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와 휴거된 신부가 일체 됐다는 것’ 을 상징으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드린 작품>입니다.

- ◆ 이 <두 개의 돌>을 하나로 이어 놓으니,
먼저 사 온 돌 봉우리 2개, 나중에 사 온 돌 봉우리 1개가 합쳐져서
총 3개의 봉우리가 나왔고,
작품의 길이는 총 6m가 되었습니다.

<봉우리 3개>는 ‘3’ 을 말하고,
<두 개의 돌의 색과 모양이 매치되고 일체> 되었으니 ‘1’ 이 되고,
<작품의 총 길이 6m>는 ‘6’ 을 말합니다.

그래서 ‘3.16’ 이 되었습니다!

- ◆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신부들이 하나 된 ‘휴거 날’ 을 상징하여
<2017년 3.16 기념>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2017년 3.16>에 맞춰서 ‘기념 선물’ 로 주시려고,
3.16 직전에 사 오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니 ‘3.16 휴거작’입니다.

- ◆ 이 둘의 형상과 같이 <2017년 3.16 휴거 잔치>로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준비된 신부들>이 하나 되어
<휴거를 기념>하고
<신부들의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

- ◆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니,
자기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판단>을 하고 100%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잔치하고 기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물건도 작품도
<비싼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비싼 것>만 보고 못 사듯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지불하는 값이 많다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못 하고 끝납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 후에 한때, 한 기간, 평생 동안 얻을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고와 노력과 투자가 아깝지 않으니, 좋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얻으면 10배, 100배 더 누리게 됩니다.

- ◆ <휴거>와 <차원 높은 휴거>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수고와 노력, 투자, 어려움, 힘든 것>만 생각하며 아깝다 하지 말고,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니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며 ‘뜻’을 두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 ◆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20년이 넘도록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며
시간과 온갖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 ◆ <월명동의 소나무들>은
처음에는 ‘손목’만 하고 ‘허벅지’만 해서
“너 언제 크냐?” 하며 실망했습니다.

그 많은 소나무들을 키우고,
또 다른 곳에 있던 소나무들을 캐서 월명동에 옮겨 심고 키우느라
기진맥진하여 기절하듯 쓰러지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소나무들은 ‘거목’이 되어 자기 보라는 듯 서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소나무들을 껴안아 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자가 껴안듯, 그리도 좋아합니다.

가꿀 때는 힘들어서 기진맥진했지만
다 키우고 껴안아 보니 너무 커서 놀라 좋아하고,
기뻐 잔치하며 군중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 ◆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도
돌을 쌓다가 없어서 한국을 샅샅이 누비며 돌을 구해다 쌓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는 더 이상 돌이 없으니
수억만 리나 떨어진 타국에 가서
돌을 구해서 배로 실어다 쌓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여 <좋은 돌들>은 다 사다가 쌓았습니다.

돌을 쌓을 때 힘들어서 쓰러지고,
몇 톤짜리 돌이 넘어져서 구사일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했지만,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니
삼위일체와 같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쌓았습니다.

결국 <기암절벽 천하의 비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 ◆ 그리고 곳곳에 공사를 해야 하니,
어렵게 공사 허가를 받으면서 10~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 ◆ 수고하고 노력하고 갖은 투자를 해서 힘들어도 만들어 놓으니,
보는 대로 기뻐합니다.

언제 봐도 기쁘고 감탄이 나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 전에는 ‘남들이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 저런 곳에 있게 될까?’ 하며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놓으니 그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평생 삼위일체와 함께 쓰고, 후손들까지 1000년 동안 씁니다.

- ◆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원했던 목적〉을 두고 행하면서,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고로 정든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원하는 구상〉대로 이상세계를 개발하여 완성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자와 결혼식을 열어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잔치했으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족한 것입니다.

- ◆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창조 역사 137억 년 만에, 종교 역사 6000년 만에
이 시대에 ‘최고 급의 신부’를 낳고 키우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를 말씀’을 주시고,
〈보낸 자가 태어난 곳〉에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에서 최고로 좋은 때, 당세〉에
준비된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 ◆ 〈하나님의 성약의 역사를 펴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마지막 휴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정녕코 ‘보낸 자’ 와 같이 행하시어

구원역사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든 궁>을 휴거 장소로 쓰고 만족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구상대로 ‘자연성전’ 을 만들어서

<내 창조 목적>을 이루고 거기서 잔치했으니,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장소다.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썼고,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쓰니 귀하다.” 하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 <새 역사>를 맞고 <주>를 따르며 <휴거된 신부들>도 그러합니다.

휴거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수고와 노력, 투자, 어려움, 힘든 것>만 생각하며 아깝다 하지 말고,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역사>를 만나서

<더 이상 없는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니,

기뻐하고 감격하기 바랍니다.

<최고 사랑의 상대, 삼위일체>를 만나 일체 되어

육 평생, 영 영원히 ‘최고의 사랑’ 을 하며 살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흥분으로 매일 뜻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